

AUTHOR 손봉호

TITLE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IN 월간고신

37호 (10, 1984): 37-41.

1549년인데 예수회파의 선교사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물론 이것은 카톨릭계통의 선교사였다.

그후 일본의 카톨릭은 신자가 계속 늘어났으며 1589년에는 풍신수길(이)이 그리스단을 금지시키는 령을 발표하였고 교외에 있는 그리스단사원 즉 교회를 불태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단들은 1597년에는 26명이나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했고 1613년에는 풍신수길(이)이 전국적으로 포교를 금지하였으며 신자들을 보이는 대로 추방 또는 살해하였다. 이같이 일본의 카톨릭교회는 1549년부터 시작되어 활발한 전도의 시기, 박해, 침체의 시기를 거쳐서 명치유신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에 개신교 선교사가 정식으로 선교 활동에 임하게 된 것은 1859년부터였다. 미국 감리교의 리긴스선교사와 윌리암스 선교사가 나가사키에 개척교회의 페르베, 브라운과 시몬즈선교사가 요코하마에 장로교의 헵번부부와 함께 도착함으로써 일본 개신교의 역사는 열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처음엔 불교의 사원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그들은 개항시에 머물면서 언어의 연습과 영어를 가르치며 의료봉사, 성경 번역 등을 통해 장래 선교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미국은 특히 일본에 우수한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이들이 신일본 건설에 미친 영향은 위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875년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유화되어 많은 인사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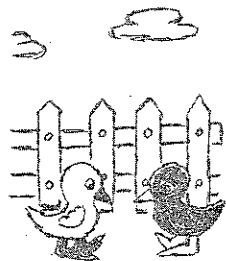
때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각국으로 부터 수많은 선교사와 함께 많은 교파가 전국 각지에 이식되어 복잡한 교계를 이루게 되었다.

1939년에는 국가가 종교단체법을 제정 발표하여 교회를 관장하더니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기독교단'을 창립하여 문부대신이 기독교단의 모든 것을 간섭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때 그들의 교단 통치지는 황송하듯도 궁중에 예닐하에 배알의 은전을 입계된 파격적인 영광에 몸들 바를 몰라하기도 했다. 그후 종전후에 그들은 교단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인하며 지지했던 것을 용서를 빕과 동시에 죄를 참회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일본기독교 교세일람

교 단	교회수	교역자수	신자수
일본기독교단	1,629	2,351	201,306
일본 성공회	320	316	48,934
일본복음부터	141	266	15,527
일본기독교회	116	129	12,284
침례교 연맹	234	345	20,746
일본Holiness 교단	118	209	4,856
Immanuel 교단	109	144	7,902
예수의 어령교회	439	165	57,776
일본 구세군	116	275	10,251
카톨릭	978	8,986	344,343
신 교	6,770	14,042	약65만명
구 교	1,079	9,028	약35만명

※기독교계열외교파는 전부 약200교파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손 봉 호  
서울사대 교수

머릿말

**얼마 전** 한국 개신교는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고, 우리는 모두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교회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동시에 부끄러움과 탄식이 섞인 감사였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인 외화 밀반출사건이 백주년 기념행사 코앞에서 일어났고, 교회에 대한 비신자들의 눈초리는 부러움과 존경에서 경멸과 조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100년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교회가 점점 헛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느낄 정도다.

이 때일 수록,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더 생각난다. 한국교회가 개혁을 위하여 무르익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분연히 일어나서 천여년간 서양의 거의 모든 분

아를 절대적으로 지배해 왔던 로마 교회를 흔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던가? 오늘날의 우리나라 개신교가 그 때의 로마교와 비슷한 점은 없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우리 행동의 표준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고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종교개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의 개혁을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의 우리 기독교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한다.

면적부와 로마교회의 부패

1517년 10월 31일(모든 성자의 날) 저녁에 독일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히브리어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에 달하는 격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문 교회 때문에 붙였는데 이것이 서양 역사

를 뒤집어 놓고, 인류문화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물론 로마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루터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란 큰 변혁을 일으킨 구체적인 첫 행위는 이 격문을 써 붙이는 것이었다.

95개 조항의 격문은 로마교의 모든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취급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때 시끄럽게 팔리던 면죄부가 과연 올바른가 하는 질문이었고, 그것은 그 시대에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였다. 누구를 상대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토론합시다」하는 공개토론 초청장이었다. 「그 내용이 로마교회에 매우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루터는 로마 교황에 의하여 파면되고, 종교개혁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직접적인 내용으로서의 면죄부도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로 하여금 그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도미니칸 교단에 속했던 면죄부 판매책임자 텃젤(Tetzel)의 면죄부 판매 방법이었고, 면죄부를 선전하는 선전내용이었다. 「당신의 그 사랑스런 귀를 기울여 세상을 떠난 당신 친척과 친구들의 애원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게 돈 몇 푼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내 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애원을 듣고싶지 않습니까? 당신의 귀

를 열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너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우리 재산을 너에게 남겼는데, 너는 그렇게 잔인하고 욕심이 많아서 우리를 풀어주는데 그 조그마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끼느냐? 이 불꽃속에 우리를 그대로 남겨 두려느냐? 그 약속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기만 하려느냐?’ 여러분이 그들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음을 아십시오. 동전이 상자속에 쟁 하고 떨어지면, 영혼들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뛰어 오릅니다.」 이와같이 텃젤은 기업을 토하며, 면죄부를 팔았다. 이는 연보를 한 푼이라도 더 올려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대는 한국의 어떤 부흥사들을 생각나게 한다.

이 텃젤이 판매한 면죄부는 그 배경 또한 부도덕한 것이었다.

그때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답지 않게 긴 장화를 신고 사냥다니는 데 많은 돈을 낭비했고, 그의 선임자가 시작해 놓은 성 베드로 사원 건축공사의 경비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긁어 모으려 했다.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다.

독일의 초콜렛래던 家は 대대로 교황청과 결탁하여 치부한 가문인데, 그 가문 출신의 알베르트 폰 브란덴베르크(Albert Von Brandenburg)는 아직 어린 나이로 벌써 하르베르스탈트와 마그데부르크의 주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공석이 된 마인쯔의 대주교 자리마저 얻어 독일전체의 추기경이 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면 많은

돈을 교황에게 바쳐야 함을 그는 알았다. 그는 독일의 은행가인 뉘거를 통해서 교황청과 교섭을 하였고, 교황청도 관심을 보였다. 교황은 12사도에 따라 일만이천 두칸의 돈을 요구했고, 알베르트는 일곱 가지의 대역죄에 따라 칠천 두칸만 내겠다고 하였다. 결국 일만 두칸으로 낙착이 되었는데 아마 10계명을 따른 것일 것이다.

이 막대한 돈을 일단 뉘거의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교황에게 바치고 알베르트는 추기경이 되었으나, 그 빚을 갚을 길이 막연했다. 그래서 찾아낸 묘한 방법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다. 교황의 허가를 받아 그 대금의 반은 교황에게 바로 바치고 그 나머지 반으로 그는 그가 진 빚을 갚으려 한 것이다. 알베르트는 텃젤과 같은 인물을 동원하여 굉장히 엄숙한 의식과 오늘의 광고문을 무색하게 하는 선전 설교를 곁들여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의 말이라면 콩이 팔이라 해도 무조건 순종하던 어리석은 농민들은 앞을 다투어 그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었다. 루터가 속해 있었던 비텐베르크에는 알베르트의 면죄부가 팔리지 못하게 행정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교구민들은 다른 지방까지 가서라도 면죄부를 사는 판이 되었다.

물론 로마교회의 잘못이 면죄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부패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교리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었고, 교회 조직도 비성경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회부패의 구체적인 표현은 대개 돈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교회부패의 구체적인 표현은 대개 돈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길 수 없다.

않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주위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감염된다. 이스라엘의 부패는 항상 우상숭배로 나타나는데, 그 우상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다. 전혀 새로운 우상을 섬긴 예는 거의 없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다스린 가장 강한 세속적인 힘은 돈이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하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심각하게 경고하였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바울은 경고하였다. 돈에 대한 탐식은 하나의 가치관 이라기보다, 모든 고등가치가 약화되었을 때 생겨나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고등가치를 상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면죄부가 교회에 의하여 팔려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모든 영적가치를 상실했다는 증거다.

### 한국교회의 배금사상

그런데 로마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물질적으로 부패했고, 그것이 면죄부 판매로 나타났다면, 오늘의 한국교회 는 과연 어떤 상태라 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교회를 한 마디로 서술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특징에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몇몇 큰 사건들이나, 요즈음 신문방송에 자주 거론되는 한국교회의 결점들을 보면, 역시 한국교회도 돈의 위상을 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외화가 성직자에 의하여 밀반출되고, 장로가 밀수를 하고, 교회돈이 사채시장에 나돌고, 공갈로 연보를 읊어내고, 목사가 사기를 치고 등등.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돈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상황이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것이다. 돈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돈이 그만큼 중요하게 보일만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곧 거짓말에 대하여 무감각해졌고, 염치가 없어지고, 올바르지 않은 시기와 적나라한 이기욕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기독교 교역자나, 신학생에게는 거의 비자를 거절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그들을 불신하는 상황이 되어 어도 아직 어느 교단 총회에서 이에 대한 반성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이름으로 치부하려 하고 경전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일 비재인데도 치리가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이웃이 많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농촌교회 교역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도시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당, 전자 오케스트라, 교육관, 기도

원, 공원묘지 등 전혀 부차적인 것들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 종교개혁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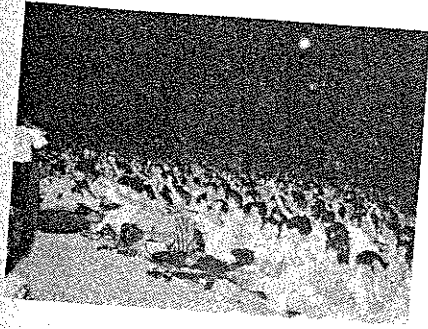
### 사제의 교권주의와 성경의 권위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동기는 로마교회의 부패였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는 성경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위치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로 만드는 일이라 하겠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교회의 권위는 구체적으로 교황과 사제들에게 있었다. 그들이 의논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입장은 아직까지도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고, 개신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에서는 사제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교황은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의 공적인 발언은 곧 그리스도의 발언과 비슷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위상화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다. 교회의 타락과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했고, 그의 생각은 항상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인간의 생각이 신성한 권위를 갖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가져



땅위의 교회는 항상 부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의 명언은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칼빈과 루터는 적극적으로 사제제도를 비판했다. 루터는 스스로 결혼함으로써 사제는 다른 인간과 다르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에 반대했고, 칼빈은 안수를 받지 않고 목회함으로 사제제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인간의 전적 부패한 사상과 일관성을 가진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 개혁의 이런 의도에 가장 부응하는 교회정치제도가 장로교 제도라 할 수 있다. 장로교에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성직자 한 사람이 혼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회(會)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성직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도 이와 비슷한 전제 위에서 서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같은 종교개혁의 이념이 우리 나라 교회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소위 교권주의란 것이 거론되고,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거리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평신도란 표현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용된

다는 사실이 불길한 징조고,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의 호칭이 그 본래의 영역 밖에서 남용되고 있음이 걱정스럽다.

물론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회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보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과 주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교권주의란 성경이 근거한 합당한 주장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직자란 사실이 그의 의견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고 모든 권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참 권리가 된다.

땅위의 교회는 항상 부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종교개혁자의 명언은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다음 한 세기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